

온달산성



온달 장군이 살던 때를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가 한강 주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크고 작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려는 위로는 중국이, 아래로는 백제와 신라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더 자주 있었습니다.

이미지출처: <http://dh.aks.ac.kr/Korea100/wiki/images/2/2e/004%28K%29.jpg>

고구려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벽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을 ‘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고구려 산성의 위치는 적을 막기에 좋고 강이 가까워서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 고구려의 산성은 아주 튼튼해서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산성이 없었다면 고구려도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고구려 사람이었던 온달 장군은 고구려를 지키려고 ‘신라’와의 싸움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산성의 이름을 지금도 ‘온달산성’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출처:<http://www.k-heritage.tv/>